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SGC E&C(016250)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박희영 연구원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SGC E&C(016250)

플랜트, 건설 분야 종합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

기업정보(2025.04.30 기준)

대표자	이우성/이창모
설립일자	1982.09.14
상장일자	1999.12.28
기업규모	대기업
업종분류	산업재
주요제품	플랜트, 토목, 건축 공사 및 물류센터사업

시세정보(2025.04.30 기준)

현재가(원)	15,700
액면가(원)	5,000
시가총액(억 원)	509
발행주식수	3,243,585
52주 최고가(원)	18,740
52주 최저가(원)	11,770
외국인지분율	2.25%
주요주주	에스지씨에너지(주), 이복영, 이우성 등

■ EPC 기반의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

에스지씨이앤씨(주)(공시회사명 ‘SGC E&C’, 이하 동사)는 1982년 설립된 종합 엔지니어링·건설 기업으로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 설계·조달·시공(EPC)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설계조직의 전문성과 축적된 프로젝트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주요 사업인 석유화학·정밀화학 중심의 플랜트 부문은 중동 및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THE LIV’ 브랜드를 활용한 주택사업과 신규 진출한 물류 사업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 스마트 설계 기술로 글로벌 플랜트 경쟁력 확보

동사는 스마트 플랜트 기반의 통합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플랜트 사업 전반에 걸쳐 설계 효율성과 시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Smart P&ID, Smart Electrical, Smart Instrument 등 요소기술은 공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의 전산화와 간섭 최소화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복잡한 공정이 많은 리뎀핑(Revamping) 프로젝트에서도 정밀한 설계·시공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동 기술은 사우디, 말레이시아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글로벌 EPC 시장에서의 기술 차별화를 실현하고 있다.

■ 플랜트 수요 확대, 건설은 원가 부담 속 경쟁 심화

플랜트 산업은 설계·조달·시공(EPC)을 기반으로 한 기술 집약적 수주 산업으로, 최근에는 중동 및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플랜트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안정화 및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수주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건설 산업은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과 민간 발주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도시정비사업과 공공주택 중심의 시장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시공 능력 및 브랜드 가치 중심의 수주 전략이 기업 간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15,233	16.5	332	2.2	520	3.4	22.73	6.64	295.2	15,620	77,615	1.82	0.37
2023	18,637	22.3	-216	-1.2	-341	-1.8	-14.22	-3.72	293.9	-10,143	69,166	N/A	0.28
2024	12,056	-35.3	106	0.9	-490	-4.1	-15.08	-4.54	309.7	-10,758	83,334	N/A	0.15

기업경쟁력

종합 엔지니어링 건설기업	다양한 국내외 플랜트·건축 프로젝트 수행 경험 보유
스마트 설계 기술	스마트 설계 기술 도입으로 EPC 전 과정 최적화 중동·동남아 등 글로벌 수주 실적 기반 경쟁력 확보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스마트 플랜트 기반 설계	스마트 플랜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정·전기·계장·3D 설계 및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플랜트 EPC 주요 프로젝트(반도체, 화공) 
스마트 건축 및 보안 기술	CCTV, 무인택배, 비상벨, 홈네트워크, 디지털 주차제어 등 스마트 단지 시스템 구현	

시장경쟁력

해외 플랜트 수주 경쟁력	사우디, 말레이시아 등 중동·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의 대형 EPC 프로젝트 수주 경험 보유, 연간 누적 수주액 13억 달러 돌파
도시정비 및 주택시장 경쟁력	'THE LIV' 브랜드 기반으로 정비사업 수주 확대, 공공주택·스마트단지 등 주거부문 경쟁력 강화
신규 사업 다각화	웨스트사이드로지스틱스를 통한 물류 사업 진출로 포트폴리오 확장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환경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도입 ◎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관리 및 환경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활동을 수행
S 사회책임경영	◎ 안전보건경영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도입 ◎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도입 ◎ 지역사회 기여,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안전·복지 강화
G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총 4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 ◎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주주 현황 및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I. 기업 현황

산업플랜트·건설·물류까지 아우르는 EPC 기반의 종합 엔지니어링 건설기업

1982년 설립된 종합건설기업으로, 플랜트·건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플랜트 수주 확대와 물류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 기업개요

동사는 1982년 9월 플랜트 및 건설 사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SGC이테크건설(주)’에서 ‘SGC E&C’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글로벌 플랜트 및 건설 EPC 사업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사는 종합 엔지니어링 기반의 EPC(설계·조달·시공) 전문기업으로 고부가가치 해외 플랜트 수주 확대 및 수익성 중심의 건설사업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연혁 및 대표이사 주요이력

동사는 1982년 영창건설주식회사로 설립되어 플랜트 및 토건 분야의 전문 시공사로 출발하였다. 1999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외형 성장을 본격화하였으며 2000년 eTEC E&C로 사명을 변경하고 중국 상하이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였다. 2007년에는 사우디 법인(eTEC Arabia LTD)을 설립하며 중동 EPC 시장 공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년대 들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였으며, 2017년 주거 브랜드 ‘THE LIV’를 런칭하며 주택 건설사업에 본격 진입하였다. 2020년에는 그룹 체제 개편에 따라 사명을 SGC이테크건설로 변경하고, 2024년 SGC E&C로 재변경하며 ‘Engineering & Construction’ 중심 기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최근 3년간에는 사우디,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총 1.5조 원 이상의 대형 플랜트 수주를 기록하였으며 반도체·보일러 발전·인쇄공장 등 첨단 산업 프로젝트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그림 1. 주요 연혁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대표이사는 이우성·이창모 각자대표 체제로, 이우성 대표이사는 SGC에너지(주)와 SGC파트너스(주)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SGC이테크건설(주) 전략기획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창모 대표이사는 건축학 전공자로 SGC이테크건설(주) 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축적된 사업전략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 종속회사 및 주주현황

동사는 플랜트 및 건설 사업의 해외 확장을 위해 다수의 종속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총 2개의 주요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주요 종속회사는 SGC ARABIA Co., Ltd., 웨스트사이드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며, 각각 플랜트사업 관련 EPC와 물류센터 사업 및 사업영위를 위한 경영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주요 종속회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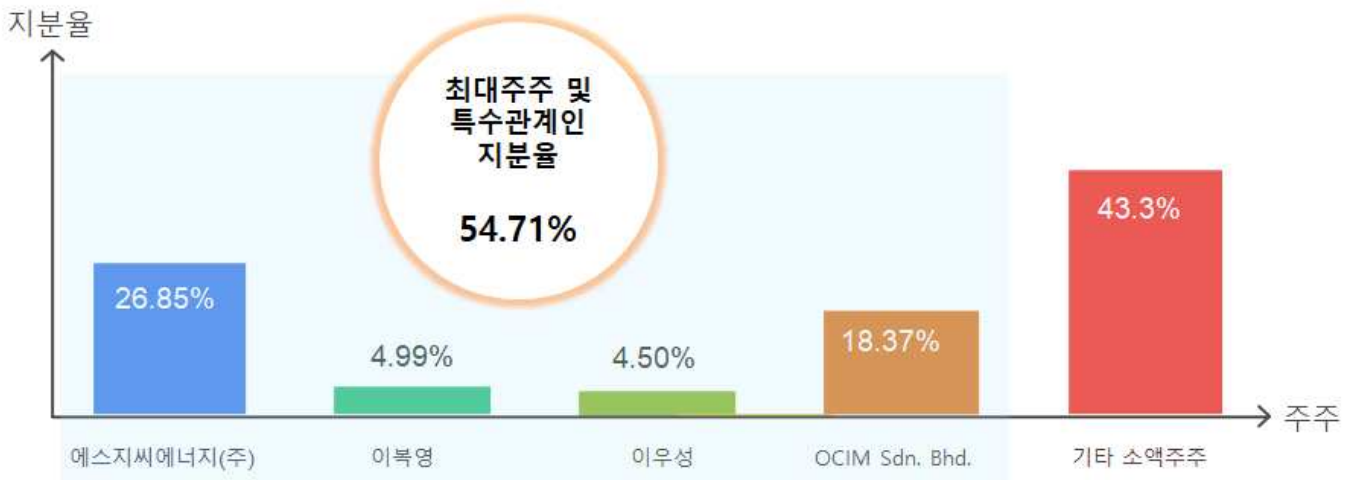
회사명	주요 사업	업계 현황	자산총액(백만 원)*
SGC ARABIA Co., Ltd.	플랜트사업 관련 EPC	설비증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추세 확산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 전망	76,513
웨스트사이드로지스틱스 주식회사	물류센터 사업	물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퀵 커머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류 수요 지속 성장 전망	278,454

* 2024년 12월 31일 결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2024년 12월 사업보고서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에스지씨에너지(주)로 1,067,103주(26.85%)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 이복영이 198,181주(4.99%), 이우성 대표이사가 178,685주(4.50%)를 보유하고 있으며, OCIM Sdn. Bhd.가 상환전환우선주를 730,000주(18.37%)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4.71%를 나타내었다. OCIM Sdn. Bhd.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상환기간 도래 시 상환(전환) 결정에 따라 보유주식 및 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동사의 최대주주인 에스지씨에너지(주)는 군산지방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된 공정용 증기를 인근 증기 수요처에 공급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림 2. 주주현황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분야 및 매출현황

동사의 주요 사업은 플랜트 부문, 건설 부문, 물류 부문으로 구분되며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매출 비중은 플랜트 55.9%, 건설 44.5%, 물류 1.81%를 차지한다. 플랜트 부문은 에틸렌·폴리에틸렌(6,877억 원), 아이소프로필알코올(2,451억 원), PDH/PP 및 EVA(4,566억 원), ECH/Chlor Alkali(1,325억 원)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계열 EPC 사업이 중심이며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매출 인식 본격화로 전년 대비 6.7% 증가한 6,743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건설 부문은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둔 선별적 수주,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부문의 비중 확대, 도급사업 확대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했으며 2024년 기준 매출은 5,364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 용두동 지주택(1,880억 원), 신촌 2구역 주택건축 정비사업(673억 원), 청주 RO 멤브레인 3호기 중설공사(471억 원) 등 산업플랜트 및 지주택, 재개발 관련 건설공사의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는 향후 글로벌 EPC 역량 고도화 및 미래성장분야의 산업플랜트 수주 확대 전략을 통해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표 2. 사업 분야

사업부문	구분	주요 사업의 내용	매출액 (백만 원)	매출 비중(%)
플랜트	국내	• 플랜트사업 관련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597,220	49.54
	해외		77,120	6.40
건설	국내	• 토목, 건축 및 부동산개발	536,381	44.49
물류	국내	• 물류센터 및 보세창고업	21,770	1.81
기타	국내	• 기타	48	0.00

* 전체 매출 비중 합계 102.24% 중 내부거래에 의한 매출비중 2.24% 미표기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그림 3. 사업부문별 매출액 구조

(단위: 백만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II. 시장 동향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고부가가치 장치 산업

플랜트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개발도상국 인프라 수요 증가로 성장 중이나, 국제 유가 및 정책 변화에 민감한 수주 산업이다. 건설산업은 금리 상승과 원가 부담 속에서 도시정비·공공주택 중심의 브랜드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 플랜트 산업 규모 및 전망

플랜트 산업은 엔지니어링, 구매, 시공, 유지관리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포함하는 융복합 산업으로, 오일·가스, 발전, 석유화학, 담수, 산업설비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다. 이 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입과 고도화된 기술이 요구되며 금융조달 및 운영·유지까지 아우르는 시스템 산업의 특성을 지닌다.

Industrial Info Resource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글로벌 플랜트 시장 규모는 약 3조 1,378억 달러로 추산되며 산업설비 부문이 전체의 41.7%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낸다. 특히 발전·담수(연평균 16.5%), 산업설비(연평균 22.6%)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전 세계적인 물부족 현상으로 인한 담수 플랜트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2027년까지 약 4조 3,98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가 핵심 성장축으로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산업화 및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신흥국 중심의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친환경 기반 인프라 사업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림 4. 글로벌 플랜트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출처: Industrial Info Resources(2023),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한편, 국내 플랜트 수주 규모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플랜트 수주 누적 금액은 팬데믹으로 저점이었던 2019년 172억 달러 이후 반등하여 2020년 275억 달러, 2023년 302억 달러, 2024년 34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신중동북’, 아세안·오세아니아 시장 진출 확대,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 등 정책적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5년 플랜트 수주 목표를 전년 대비 2.6% 증가한 350억 달러로 설정하고, 고위험 국가 대상의 금융보증 확대,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2,500억 원) 추가 확보, 해외수주센터 확대, ‘해외플랜트진출 확대사업’ 예산 82억 원 투입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세계 에너지 공급 확대, 트럼프 2기 미국정부 출범 등 주요 글로벌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대해 전문가와 정책 당국 간의 협력 강화도 병행 중이다.

■ 건설산업 규모 및 전망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민간소비·설비투자·부동산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2025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건설수주는 총 206.7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2024년에는 고금리·자금조달 리스크 등 복합적인 여건으로 인해 205.8조 원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다만 2025년에는 정책적 지원과 공공 수주 증가에 따라 총 210.4조 원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주 구성별로는 2024년 기준 건축수주가 130.1조 원, 토목수주가 75.7조 원으로 분포되며 민간부문 위축을 공공부문이 보완하는 구조가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정비사업, 공공주택, SOC(도로·철도·항만·상하수도 등) 등 정책사업 중심의 수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도심복합 등 주택정비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50만호’ 정책, 노후 신도시 재정비 등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20% 이상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고속도로·도시철도·공항 등 SOC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투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2025년 SOC 예산(41.5조 원)은 전년 대비 6.7% 증가해 대형 인프라 발주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상하수도, 스마트시티, 수소기반 도시 조성 등도 정책지원이 집중되는 영역으로 관련 수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차전지·반도체 등 첨단 산업설비에 대한 민간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산업플랜트·클린룸·기능성 복합시설 등 고사양 시공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2024년까지는 조정 국면이 지속되었으나 2025년 이후에는 정책 주도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 공공주택, SOC, 산업플랜트 분야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이와 연계된 정부 예산 및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기관별 시장전망

글로벌 플랜트 시장 규모는 2023년 3조 1,711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CAGR) 8.52%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약 4조 3,98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Industrial Info Resources

2025년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210.4조 원으로 예상되며 2025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295.3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경쟁업체 현황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 첨단 기술 기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플랜트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국내 플랜트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현대건설, 삼성E&A,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이 있다.

표 3. 경쟁업체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 및 현황
현대건설	- 해외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강점을 보이며, 중동 지역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함. - 건설장비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에 적극적임.
삼성E&A	- 석유화학, 정유, 가스 플랜트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반도체 및 배터리 플랜트 등 비화공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DL이앤씨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중립 기술에 집중하며, SMR(소형모듈원전)과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현대엔지니어링	스마트 시공 및 디지털 전환에 주력하며, AI와 데이터 기반의 설계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GS건설	- 글로벌 시장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건설과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자회사인 GS이니마가 국내 최대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인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플랜트, 오만 바르카 프로젝트, UAE 슈웨이hat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해수담수화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플랜트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며, 경쟁업체들은 스마트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과 ESG 경영 강화로 인해 수소, SMR, CCUS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의 진출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친환경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III. 기술분석

친환경 및 고부가 EPC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체 기술 역량 강화

동사는 스마트 플랜트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플랜트 EPC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Total Plant Solution 체계를 바탕으로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디지털 기반의 통합 설계를 실현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분야

동사는 플랜트,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물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플랜트 부문에서는 에틸렌, 폴리에틸렌, 이소프로필알코올(IPA), PDH/PP, EVA, 염소알칼리 등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분야의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EPC 기업으로서 중동,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주력하고 있다. 건설 부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등 도시정비 분야와 공공·민간 주택, 인프라(도로, 철도, 터널, 공항, 항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 주거 브랜드 'THE LIV'를 통해 주택공급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차전지·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반 시설의 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별적 수주 전략을 통해 수익성 중심의 도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매출은 플랜트, 건설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플랜트 부문 매출 비중 55.94%, 건설 부문 매출 비중 44.49%, 물류 부문 매출 비중 1.81%로 확인된다.(전체 102.24% 중 내부거래에 의한 매출비중 2.24% 제외)

플랜트 부문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형 EPC 프로젝트 수주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최근 주요 수주 현황

품목	수주일자	납기	수주총액(백만 원)
SEPC Ethylene Cracker Expansion Project	24.01.15	26.01.31	651,149
APOC IPA Project	24.02.17	26.11.30	266,203
SIPCHEM PDH/PP DBN	24.07.01	26.10.31	227,009
SIPCHEM EVA DBN	24.07.01	27.10.31	251,382
경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4.03.13	27.12.31	143,343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24.06.13	26.10.13	67,299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스마트 플랜트 설계 기술

동사는 플랜트 사업의 전주기[기획(Planning),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를 통합한 Total Plant Solution 체계를 바탕으로 스마트 플랜트 기술을 전략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디지털 기반의 통합 설계를 실현하며, 전산화 시스템과 3D 모델링 기반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플랜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정·전기·계장·3D 설계 및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Smart Plant P&ID, Smart Plant Electrical, Smart Plant Instrument, Smart Plant 3D, Smart Plant Foundation 시스템은 모든 설계 문서를 전산화하고 설계 오류를 최소화하며 공정 간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설계 정확성과 시공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납기를 단축하며 비용을 최적화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신규 플랜트의 경우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Full 3D 모델링 기반 협업을 수행하여 배관·장치·철골 구조물의 간섭 및 충돌을 사전 예측하고 해결함으로써 시공단계의 오류를 크게 줄이고 있다. 스마트 플랜트 기술은 신규 플랜트뿐 아니라 기존 공장의 증설이나 개선을 위한 리벳핑(Revamping) 프로젝트에도 적용되며 특히 기존 플랜트의 3D 스캐닝 및 설계 범위 검증을 통해 기존 설비와의 간섭을 차단하고, 설계-구매-시공 범위를 정밀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그림 5. 스마트 설계 기술

신규 프로젝트의 스마트 설계



리벳핑(Revamping) 프로젝트의 스마트 설계



출처: 동사 홈페이지 발췌(2025)

■ 스마트 건축 기술

동사는 주거 공간의 안전, 쾌적성,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 리빙 솔루션’을 통해 차별화된 스마트 건설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통합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건축물의 지능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

첨단 무인 전자경비, 번호 인식 기반 주차관제, CCTV 감시 및 비상벨 시스템이 통합 적용되며, 단지 내·외부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차단해 입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시큐리티 시스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폐질환 환기시설, 비데 일체형 양변기, 부스터펌프 급수 시스템 등을 통해 친환경·건강 중심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웰빙 시스템, 홈네트워크, 통합 스위치, 원격검침, 방송공동수신, 주차유도시스템 등을 연동함으로써 스마트홈 기반의 자동화 환경을 실현하는 디지털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스마트 건축 기술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시티 기반의 주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THE LIV’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을 지속 확대·고도화하고 있다.

■ 연구개발 활동

친환경 기술 중심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기술연구소로 등록된 엔지니어링본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수처리, 대기오염 저감, 환경플랜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연구조직은 고객 맞춤형 Pilot 기술지원과 시운전 지원, 기술자문 및 기술협력 등 실증 기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학·협회·글로벌 기술사와의 협업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으로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URC 시리즈, AFP, DAIWA 시리즈 등이 있으며, 액중 소각로, De-NOx Scrubber 등 대기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실제 환경 플랜트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다.

■ 기술 진입장벽

동사는 작성일 기준 브랜드의 고유성 확보와 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개의 국내 상표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상표권은 모두 아파트 브랜드 '더리브(THE LIV)'와 관련된 것으로, 영문/한글 로고, 시리즈형 브랜드(THE LIV STYLE, THE LIV PRESTIGE), 캐릭터(아키, 웰리, 캡틴테리 등)까지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표 5. 주요 지식재산권 현황

구분	명칭	취득일	등록번호	내용
상표권	THE LIV	2017.11.13	제 40-1303388호	아파트 브랜드 '더리브'에 대한 상표권 (브랜드이미지-1)
상표권	THE LIV	2017.11.13	제 40-1303389호	아파트 브랜드 '더리브'에 대한 상표권 (브랜드이미지-2)
상표권	theliV	2017.11.13	제 40-1303390호	아파트 브랜드 '더리브'에 대한 상표권 (브랜드이미지-3)
상표권	theliV	2017.11.13	제 40-1303391호	아파트 브랜드 '더리브'에 대한 상표권 (브랜드이미지-4)
상표권	THE LIV	2017.11.21	제 40-1305715호	아파트 브랜드 '더리브'에 대한 상표권 (브랜드이미지-5)
상표권	theliV	2017.11.21	제 40-1305716호	아파트 브랜드 '더리브'에 대한 상표권 (브랜드이미지-6)
상표권	더리브 원형로고	2018.07.06	제 40-1475445호	아파트 브랜드 '더리브'에 대한 상표권 (브랜드이미지-7)
상표권	더리브 한글	2018.07.06	제 40-1375446호	아파트 브랜드 '더리브'에 대한 상표권 (브랜드이미지-8)
상표권	THE LIV 상하로고	2018.07.13	제 40-1377697호	아파트 브랜드 '더리브'에 대한 상표권 (브랜드이미지-9)
상표권	THE LIV 좌우로고	2018.07.13	제 40-1377698호	아파트 브랜드 '더리브'에 대한 상표권 (브랜드이미지-10)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SWOT 분석



1. 강점 (Strengths)

- 석유화학·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글로벌 플랜트 EPC 역량 보유
- 스마트 플랜트 기반의 설계·시공 통합 기술 보유
- ‘THE LIV’ 주택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공공주택 시공 실적과 브랜드 인지도
- 해외 대형 프로젝트(사우디, 말레이시아 등) 연속 수주를 통한 실적 성장세 확보

2. 약점 (Weaknesses)

- 단기 재무 부담 확대 (물류센터 투자 등으로 인한 총차입금 증가)
- 매출 감소 (2024년 전년 대비 매출 35% 하락)
- 일부 수익성 저하 프로젝트 및 초기 물류사업 수익성 미확보

3. 기회 (Opportunities)

-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신재생 확대에 따른 CCU·스마트 플랜트 수요 증가
- 물류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 동남아·중동 중심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EPC 시장 확대

4. 위협 (Threats)

- 글로벌 원자재·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및 수익성 저하 가능성
- 해외 공사 리스크 및 환율 변동 위험
-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민간 발주시장 위축

IV. 재무분석

2024년 매출 감소, 영업이익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 적자 지속

2024년 국내 건설경기 둔화와 발주시장 위축 속에서 플랜트사업 부문 매출 감소를 중심으로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되었으며, 투자부동산 손상차손과 이자비용 증가로 당기순손실도 확대되었다.

■ 2024년 산업 전반 수요위축으로 매출 감소

동사는 플랜트사업, 토건(토목, 건축, 바이오&제약, 환경)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4년 물류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최근 건설 및 플랜트 산업은 글로벌 경기 변동성 증대로 인한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의 고착화, 건설경기 회복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동사는 2021년 1조 3,079억 원, 2022년 1조 5,233억 원, 2023년 1조 8,637억 원의 매출을 실현하며 매출성장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5% 감소하여 1조 2,05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이는 국내 발주시장의 위축과 분양시장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신규 공사가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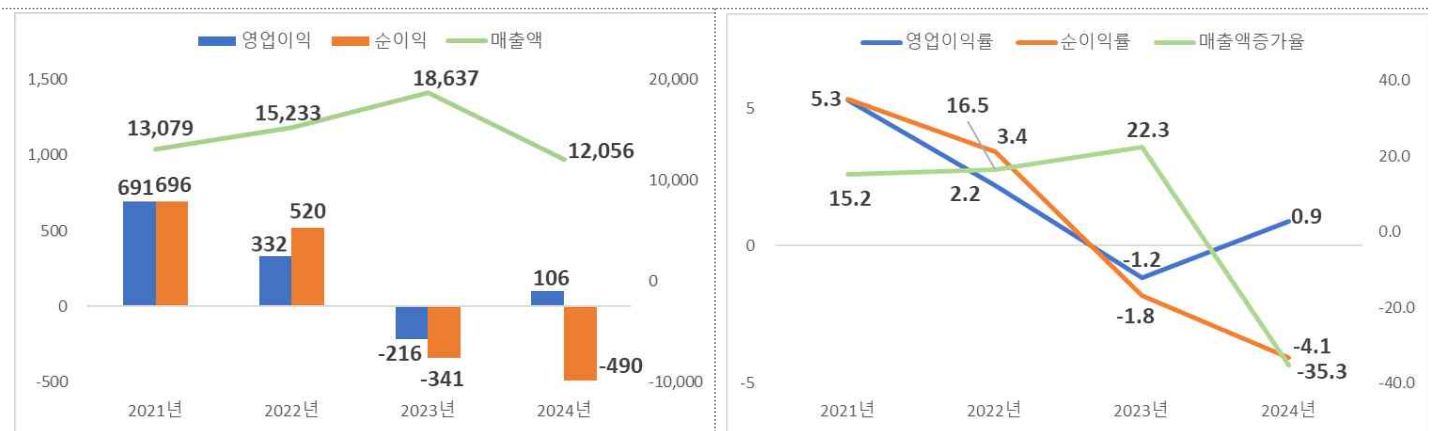
■ 2024년 영업이익 흑자전환, 당기순손실 지속

2024년 동사는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하였다. 이는 플랜트사업의 국내 수요가 위축되고 원가 부담이 상승하였으나, 2023년부터 중동 및 동남아에서의 신규 수주를 통해 글로벌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사업 부문은 건설경기 하락과 위축된 분양시장 상황 속 공사비가 확보된 안정적인 사업구도 및 수주전략을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매출원가율이 2023년 97.9%에서 2024년 93.7%로 하락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1.2%에서 0.9%로 상승하면서 영업이익 규모도 2023년 -216억 원에서 2024년 106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였다. 다만, 물류센터 채무 인수로 인한 차입금과 이자비용 급증, 이연법인세비용 125.8억 원 인식, 투자부동산 손상차손 등 영업 외 비용 증가로 인해 2023년 당기순손실 341억 원에서 2024년 4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손실 폭이 확대되었다.

그림 6.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유동비율 양호 추세, 부채비율 관리 필요

동사의 유동자산은 2023년 7,231억 원에서 2024년 7,671억 원으로, 유동부채는 6,264억 원에서 6,715억 원으로 증가하여 유동비율은 2021년 123.3%, 2022년 112.0%, 2023년 115.4%, 2024년 114.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산총계는 투자부동산, 이연법인세자산 등 비유동자산의 증가로 2023년 8,600억 원에서 2024년 1조 2,98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채총계는 비유동차입금의 증가로 2023년 6,416억 원에서 2024년 9,81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동사는 자본집약적 산업특성상 높은 부채비율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2021년 189.7%에서 2022년 295.2%, 2023년 293.9%, 2024년 309.7%로, 점차 증가세에 있어 이부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4년 말 기준 764억 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현금비율 11.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6.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13,079	15,233	18,637	12,056
매출액증가율(%)	15.2	16.5	22.3	-35.3
영업이익	691	332	-216	106
영업이익률(%)	5.3	2.2	-1.2	0.9
순이익	696	520	-341	-490
순이익률(%)	5.3	3.4	-1.8	-4.1
부채총계	3,875	7,272	6,416	9,818
자본총계	2,043	2,463	2,183	3,170
총자산	5,917	9,735	8,600	12,988
유동비율(%)	123.3	112.0	115.4	114.2
부채비율(%)	189.7	295.2	293.9	309.7
자기자본비율(%)	34.5	25.3	25.4	24.4
영업현금흐름	-23	1,160	-1,896	-1,185
투자현금흐름	318	-2,179	1,260	-3,730
재무현금흐름	-236	1,275	305	4,699
기말 현금	1,069	1,316	990	764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동사 실적 전망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사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신흥국 중심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플랜트 산업은 에너지 전환, 탈탄소 정책, 친환경 인프라 수요 확대 등에 따라 화공·산업 플랜트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 및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발전·수처리 분야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동사는 화공 및 산업 플랜트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축적된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산업으로의 수주 영역 확대와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 건설 산업은 고금리 및 금융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단기적인 제약 요인이 존재하나 재건축·재개발·도심복합개발 등 정비사업 중심의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사는 선별적이고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체 주거 브랜드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주택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 중이다. 더불어 각 사업 부문 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운영과 수익성 제고 전략을 통해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동사는 글로벌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8.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7. 동사의 사업부문별 연간 실적 및 분기별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2	2023	2024	2025E	1Q2025E	2Q2025E	3Q2025E	4Q2025E
매출액(억 원)	15,233	18,637	12,056	12,941	3,235	3,235	3,235	3,235
플랜트	10,102	6,318	6,743	7,081	1,770	1,770	1,770	1,770
건설	5,134	12,320	5,364	5,632	1,408	1,408	1,408	1,408
물류	0	0	218	229	57	57	57	57
기타	0.26	0.04	0.48	0.50	0.13	0.13	0.13	0.13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신사업 진출과 해외 수주 확대로 수익성 강화

해외 플랜트 수주 확대를 통해 스마트 설계 기술 기반 글로벌 EPC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신규 물류 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기반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 해외 플랜트 수주 확대를 통한 글로벌 EPC 경쟁력 강화

동사는 2024년 들어 해외 플랜트 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치며 글로벌 EPC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사우디 SEPC Ethylene Cracker Expansion 프로젝트(약 5억 287만 달러), 말레이시아 OCIKUMHO ME1 프로젝트(약 9,363만 달러), OCIM MP7 프로젝트(약 6,346만 달러) 등을 수주하며 중동 및 아시아 시장에서 본격적인 실적을 창출하였다.

하반기에도 사우디에서 에틸렌초산비닐(EVA) 및 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PDH·PP) 생산설비 프로젝트를 연이어 확보하며, 2024년 기준 연간 누적 수주액은 13억 203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수주액(약 3,363만 달러) 대비 약 3800% 증가한 수치로, 수주 규모와 성장률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이다. 특히 플랜트 부문 연간 수주 목표였던 1조 1,500억 원을 조기 초과 달성하며 동사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실제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 신규 물류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최근 신규 사업으로 물류사업에 진출하며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회사인 웨스트사이드로지스틱스(주)를 설립하고, 인천 원창동 물류단지 내 상온·저온·보세창고를 아우르는 3PL 기반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개시하였다. 동 사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 및 국내 이커머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진출로 해석된다. 동사는 3자 물류(3PL) 기반의 통합 물류 서비스를 통해 창고 운영뿐만 아니라 운송, 재고관리, 주문처리 등 고부가가치 물류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플랜트 및 건설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수익 기반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

☑ 프롬프트: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SGC E&C는 플랜트 중심의 글로벌 EPC 수주 확대와 신규 물류사업 진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말레이시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연간 누적 수주액 13억203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플랜트 부문 수주 목표도 조기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같은 해 영업이익 12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 웨스트사이드로지스틱스를 통해 인천 원창동 물류단지를 기반으로 3PL 물류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중장기 수익성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 매출 목표를 1조 4,6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과 재무개선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 출처: Chat GPT

SGC E&C(016250)

SGC E&C는 2025년까지 지속 가능한 건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시아 및 중동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사업 부문에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SGC E&C는 2025년까지 매출 목표를 1조 8,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무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워튼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LS증권	Not Rated	Not Rated	2025.02.27
	- 최근 사우디를 필두로 한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의 설비 증설 및 업그레이드 수주로 성장 동력 확보 - 고마진 해외 사업부의 매출 증가, 저마진 국내 사업부의 매출 감익, 물류센터 손실 마무리로 연내 YoY 성장 확인, 주가 모멘텀 회복 기대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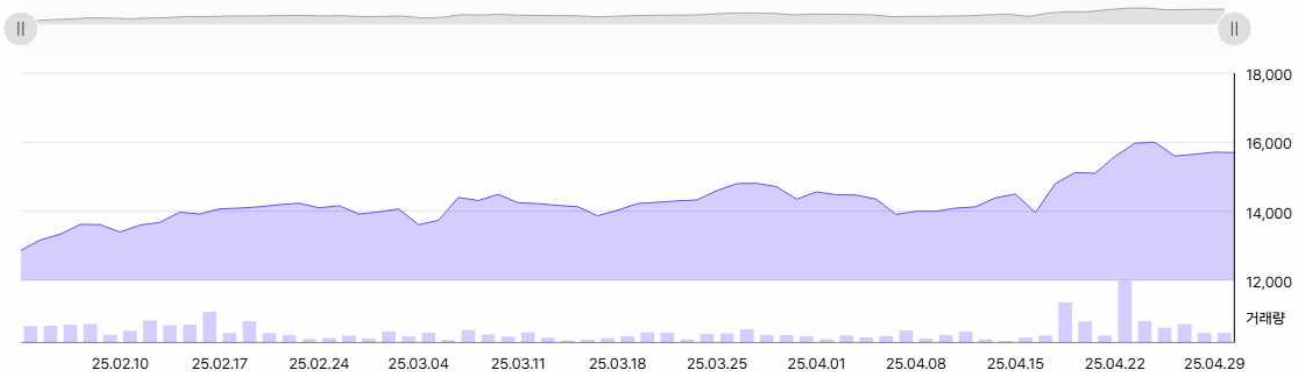
016250 코스닥

기준 : 2025.04.30 | 단위 : 원, 주, %

15,700 ▼10 -0.06%

전일 15,710 고가 15,710 거래량 3,159 주
시가 15,710 저가 15,250 거래대금 49 백만원

1주일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자료: NICE BizLINE(2025.04.3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SGC E&C	X	X	X